

오늘 '우주의 문'이 열린다

3시30분~7시 나로호 3차 발사 "준비 이상무"...최종 리허설 완료

26일 오후 고흥에서 우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국내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이날 오후 3시30분~7시 사이에 발사될 예정이다. 1·2차 발사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문제로 지적됐던 위성 보호덮개(페어링) 등을 손보는 등 발사 성공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관련기사 2·3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성공 발사를 위한 막바지 점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주변 숙박시설 예약이 폭주하는 등 우주소를 지켜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발사 당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상공은 흐리겠지만 발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운트다운 1초를 남기고도 발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발사 여부는 발사 2시간 전인 26일 오후 1시 30분께 최종 결정된다.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5일 나로우주센터는 "이날 최종리허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분석된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예정된 시각에 나로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리허설은 발사 운용시스템을 실제 발사 과정과 똑같이 설정해 진행됐다. 1단 로켓 리허설은 오전 9시 1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상단 로켓 리허설은 낮 12시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이뤄졌다. 또 발사관제시스템을 이용해 발사체, 발사대 및 추적시스템 등을 최종 점검했다.

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기술경영

팀 홍일희 팀장은 "리허설 결과 발사를 연기할 만한 결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발사 당일인 26일 오전 7시부터는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들어간다. 연료탱크와 산화제탱크 배관 등을 냉각(-180℃)한 뒤 오후 1시까지 연료와 산화제 등을 충전하게 된다.

이후 탑재시스템 점검과 운용을 거쳐 모든 기기가 정상상을 유지하고 기상 등이 이상이 없으면, 발사 예정 15분 전 자동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나로호는 이륙 후 20초간은 900m 상공까지 수직으로 치솟은 뒤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킥 턴'(kick-turn)을 하게 된다. 또 215초에는 고도 177km 지점에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고비인 1, 2단 로켓을 연결한 페어링이 분리된다. 이후 발사 453초에는 2단 로켓의 연소가 종료되고 고도 305km 목표 궤도에 진입한다. 위성 분리는 540초, 이륙 후 9분 후 이뤄진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로비에서 열린 언론인터뷰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이 많이 성원해 주시는데 이에 보답해 반드시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는 26일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어 흐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나로호 발사의 장애물인 나뭇잎은 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25일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별 궤적과 우주과학관 공원에 설치된 나로호 모형을 합성한 사진. /연합뉴스

8급 직원이 3년간 100억 빼돌려도 감감 지자체 자체 감사 '하나 마나'

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대형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자체 감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2년마다 각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수억~수십억원대 대형 횡령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에서만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 공무원 A(37·여)씨는 최근 2년여간 공금 5억여원을, 여수시청 8급 공무원 B(47)씨는 3년여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공금을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들 시·군에 대해 2년마다 정기 감사를 벌여왔으나 관련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 두 공금횡령 사건의 공통점은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해 전남도는 물론 자체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각 시·군의 공금횡령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운용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었

여수시·완도군 등
공직자 잇단 횡령
시스템 개선 시급

e-호조 시스템은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 등 지방재정의 전 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입 세출 외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쓰지 않고 직접 손으로 써넣는 '수기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서류조작을 할 경우 얼마든지 횡령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잇단 횡령비리에는 짧은 감사기간과 적은 인원 등 열악한 전남도의 감사 시스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2년마다 한 번씩 시·군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있지만, 감사기간은 각 7일과 5일에 불과하다. 대형 비리 발생 분야인 계약, 지출, 세무감사도 각 1명씩의 인원이 투입되는 데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류만 대충 살펴보는 '수박겉핥기식' 감사

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외부 제보나 언론보도 등에 의지해 특정 분야만 집중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사 전문가들은 감사인력 확충과 개방형 외부 감사 전문가 영입 등 감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도 25일 공금횡령 사건 제발 방안을 위해 ▲세입세출 외 현금 담당공무원과 출납원 분리 및 순환근무제 운영 ▲재정 관리 시스템(e-호조) 사용 의무화 및 지출(e-banking)단계까지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의 경우 국제청 등과의 협조를 공공인출금 내용 등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비리를 적발해 낼 수 있지만, 자치단체 감사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자치단체 감사는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보다는 주요 정책과 사업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정책감사'의 성격이 짙은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관람객 100만명 돌파 구매액정 1841억원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2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 21일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직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36분께 보성군 벌교읍에 사는 이철로(49)씨가 100만번째 입장객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직위

는 행운의 주인공인 이씨에게 50만원 상당의 친환경 예초기를 기념상품으로 증정했다.

조직위는 개막 21일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오는 29일 폐막일까지 당초 목표한 105만명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국제농업박람회 부위원장은 "폐막일까지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박람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현재 농산물 구매 액은 1841억원, 농산물 현장 판매액은 35억원으로 집계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환율 13개월만에 1100원선 붕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 밑으로 하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만에 1,000원대에 진입했다.

<관련기사 8면>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5.40원 내린 1,098.20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이 1,100원선 밑으로 떨어진 것(종가 기준)은 지난해 9월9일(1,077.30원) 이후 13개월여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20원 떨어진 1,103.40원에 개장한 직후 하락폭을 넓히며 1,1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www.r-golf.com

록펠러 멀티 회원권

- 1,680만원(멀티회원권), 3,360만원(프리미엄 멀티회원권) 회원 모집
- 보증금 예치기관 : 동양생명
- 동양생명 질권설정으로 입회보증금 안정성 확보
- 호남최초 부킹사이트 개설(VIP회원대우, 회원간 동호회 운영)

록펠러 멀티회원 혜택

- 기명 1인 입회
- 각 골프장별 매월 주중 3회(주말 및 공휴일 1회 포함), 그린피 30% 지원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20% 지원)
- 골프장 할인 행사시 할인된 금액에서 그린피 20% 추가 지원

록펠러 프리미엄 멀티회원 혜택

- 기명 1인 입회
- 각 골프장별 매월 주중 3회(주말 및 공휴일 1회 포함), 그린피 50% 지원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30% 지원)
- 골프장 할인 행사시 할인된 금액에서 그린피 30% 추가 지원

제휴골프장

골드레이크 C.C, 아크로 C.C, 푸른솔 G.C, 화순 C.C(구, 클럽900 C.C)

부가혜택사항

- 광장골프존 리얼 스크린골프존, 지아인트골프존, 리얼 스크린골프존, 매월 5회 그린피 30% 할인
- 골리데이 인 광주 호텔 회원우대 특별할인(게스텐드호텔 기준)
- 세계로 한방 병원 골프전문 클리닉, 한방진료, 입원 의료 혜택
- 미담 한의원 피부이음, 다이어트프로그램, 의료혜택
- 주소변인, 발의원 VIP 재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 통합부킹 사이트 전화환대우

록펠러회원권거레소(주)
멀티 회원권 문의 062)351-0095

동양생명 GA사업단
동양생명 보험문의 062)514-2842